



2022 년: 스텔라 오디세이

예거 르쿨트르가 기념하는

시간 측정의 근원이 되는 우주 현상과

위치메이킹 혁신 사이의 유대감을 기념하는 예거 르쿨트르

2022 년, 예거 르쿨트르는 시간 측정의 근원인 천문학적 현상에 경의를 표하는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를 선보입니다. 그랑 메종에 있어 이러한 현상은 뜻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단지 행성과 별의 움직임이 시간 측정의 기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랑 메종의 고향이 유난히 맑은 밤하늘이 펼쳐지는 발레드주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매뉴팩처의 위치메이커는 이곳에서 다양한 천문 현상을 관찰하며 다채로운 영감을 얻습니다.

태초에 별의 움직임은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후 이러한 측정법은 시계 그리고 시계 메커니즘의 구조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지금, 현세대의 위치메이커들은 천문학적 현상을 재해석하여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정교한 형태의 컴플리케이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매뉴팩처 초기부터 천문학적 기능은 예거 르쿨트르의 정밀한 시계 컬렉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태양, 달, 항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 측정법을 모두 마스터한 그랑 메종은 천체 현상을 나타내거나 예측까지 하는,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2022 년에는 이처럼 고귀한 유산을 기리며 약 190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셀레스티얼 위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는 이처럼 아름다운 타임피스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시간 측정의 기원과 위치메이킹의 근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Stellar Odyssey

2022년부터 그랑 메종이 전 세계에 테마 이벤트를 개최함에 따라, 예거 르쿨트르의 스텔라 오디세이는 문자 그대로 흥미로운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객과 대중들은 손목 위의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된 우주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텔라 오디세이 전시는 3월 워치스 & 원더스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매혹적인 시간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천체에서 영감을 얻은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모델들을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방문객들을 가상 우주 여행으로 안내하는 몰입도 높은 멀티미디어 설치 작품을 선보입니다. 아틀리에 앙투안에서의 2022년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은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의 경이로움과 시간 측정의 기원이 되어준 천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장인-크리에이터와의 최신 협업 시리즈를 선보이는 예거 르쿨트르는 저명한 미술사가인 마티아스 지루(Matthias Giroud)에게 우주에서 얻은 영감과 발레드주를 담아낸 최상급 칵테일 메뉴를 의뢰했습니다.

“올해 스텔라 오디세이를 통해 매뉴팩처의 월드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며, 천체 테마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의 작품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천체 세계의 경이로움을 예술 설치물과 몰입도 높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아틀리에 앙투안은 스텔라 오디세이 테마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 워크숍을 도입하여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전수할 새로운 방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CEO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

시간의 기원

먼 옛날 인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떤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으며 인간이 제일 처음 인식한 시간의 경과를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고자 하는 열망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태양 주기에 따른 사냥, 수확, 식사, 수면, 사고 활동과 같은 일상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고대 이집트인과 바빌로니아인은 낮 시간을 12등분으로 나뉘 수직 막대(gnomon)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표시된 눈금을 이동하는 해시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밤 시간을 12등분 하여 하루를 24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길이는 일 년 내내 달라졌습니다. 낮 시간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길었고, 밤 시간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스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Hipparchus)는



춘분을 기준으로 24 시간을 분할하여 1년 내내 시간의 길이를 동일하게 만들 것을 제안했지만, 14세기에 기계식 시계가 등장할 때까지는 고정된 길이의 시간이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천체 주기를 재현하고 천문학적 현상에 대한 과학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구들이 발명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도입되어 8세기 이후 더욱 널리 사용된 아스트롤라베(Astrolabe)는 평평한 표면에 우주를 재현해 휴대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천문학자들이 다양한 우주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었으며 천문학, 점성술, 항법 그리고 종교에 응용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우주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에 두는 지동설은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코스(Aristarchus of Samos)에 의해 고대 그리스에서 제기되었지만, 태양과 행성이 고정된 지구 주위를 회전한다는 지구중심설은 코페르니쿠스가 태양계 모델을 발표한 1543년까지 우세했습니다. 텔루리온(tellurion, ‘tellurium’ 이라고도 함)으로 알려진 3차원의 움직이는 기계 장치는 태양에 대한 지구와 달의 상대적인 위치와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종종 시계 제작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최초의 ‘진동자’인 진자의 시간 측정 속성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갈릴레오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기계식 시계가 14세기에 등장했지만 정확한 시간 측정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1656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크리스티안 호이겐스(Christiaan Huygens)가 펜듈럼 시계를 발명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천문학과 시계학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 발전해 나갔습니다.

앙투안 르쿨트르는 강한 발명 정신에 힘입어, 1833년 위치메이킹 공방을 설립했고, 다방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선보이는 매뉴팩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시계 발명가인 그랑 메종 위치메이커는 단순한 문페이스 디스플레이부터 매우 복잡한 퍼페추얼 캘린더와 스카이 차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을 마스터했으며, 손목시계 케이스의 작은 공간에 옮겨온 우주 현상을 다양한 기능과 결합함으로써 경이로운 그랑 컴플리케이션을 완성했습니다. 다른 저명한 메종들이 자사 시계에 장착하기 위해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칼리버를 구매함에 따라, 그랑 메종은 위치메이커 중의 위치메이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간극



위치메이킹은 천체의 다양한 주기 값을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하지만, 표준시 측정 단위는 지구 주기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근사치일 뿐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정확한 달력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기원전 100 년경, 이집트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하늘의 같은 위치로 돌아가 완전한 계절 주기를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여 1 년의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태양(또는 "회귀")년에 해당하는 365.242189 일(보통 평균 365.2425 일)은 365 일인 역년을 약 6 시간 초과합니다.

기원전 46 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도입된 율리우스력은 30 일 또는 31 일로 구성된 12 개월로 나뉩니다. 율리우스력은 태양년보다 약 6 시간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4 년마다 2 월에 하루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오차가 발생하였고, 1582 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 세가 일부 윤년을 삭제함으로써 태양년과 역년의 차이를 27 초 이내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에 따르면, 연도가 4 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 되지만 100 으로도 나눌 수 있으면 윤년이 아닙니다(예: 1900 년, 2100 년). 그런데 400 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 윤년이 됩니다(예: 2000 년, 2400 년)

매우 정교한 기어 시스템만이 이러한 불규칙한 시간을 반영할 수 있기에, 윤년뿐만 아니라 달의 길이가 다른 달력의 불규칙성은 위치메이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였습니다. 토마스 머지(Thomas Mudge)는 1762 년에 최초의 포켓 워치용 퍼페추얼 캘린더 메커니즘을 개발했고(이러한 메커니즘은 이전에 클락에만 등장), 150 년 동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이와 같은 업적은 되풀이되지 않았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19 세기 말부터 정교한 퍼페추얼 캘린더를 마스터한 뒤 다른 컴플리케이션과 결합하여 그랑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를 제작했습니다.

월드 타임

시간의 흐름은 태양 주기를 기반으로 하며, 초기 항해사를 포함한 인간은 일출과 일몰이 다른 장소와 시간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 세기 해상 무역의 발전과 19 세기 철도 시대의 서막이 오르며 표준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각 도시에는 태양이 정점에 달하는 정오에 설정되는 현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1884 년에 개최된 국제자오선회의에서 런던 소재 그리니치 천문대가 전 세계 시간 계산의 표준이 될 본초자오선(경도 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통의 하루는 그리니치의 정오부터 다음 정오까지를 뜻하는 표준태양시에 해당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결의안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24 개의 균일한 시간대를 만들기 위해 공식화되었습니다.

20 세기 여행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시간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계에 대한 수요가 생겨 월드 타임에 이어 GMT, 듀얼 타임 위치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태양시의 표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알람 기능이 장착된 최초의 메모박스 월드 타이머, 듀얼 타임 기능의 리베르소 듀오페이스, 매우 정교한 듀오미터 유니크 트래블 타임, 24 시간 내에 회전하는 다이얼로 지구의 자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칼리버 948 등의 혁신을 통해 이러한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발전시켰습니다.

별자리의 비밀

한때 “신들의 데이지 화환(daisy chains of the gods)” 이라고 불렸던 별은 항상 인류를 매혹해왔습니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패턴을 인식하기 때문에, 초기 문명은 별들이 무리 지어 있는 별자리를 구별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별자리의 모양은 동물이나 신화 속 인물을 떠올리게 했고, 고대 사회에서 별자리의 위치 변화는 신이 메시지를 보내고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별자리는 그 위치로 항해에 도움을 주거나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할 시기를 알려주는 등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원전 130 년경 그리스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최초의 정확한 별자리표를 만들었습니다. 1,000 년 전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과 기원전 400 년경 중국의 천문학자 감덕(甘德)이 앞서 선보인 바 있지만, 히파르코스의 연구는 서양 천문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정된 88 개의 별자리 중 가장 잘 알려진 별자리는 황도 12 궁의 열두 개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들은 황도(천구에서 태양의 궤도)를 가로지르는 띠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함에 따라 겹보기 위치가 바뀝니다.

시간 측정의 천문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그랑 메종은 발레드주 매뉴팩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메커니즘을 발명했습니다. 칼리버 945 에 도입된 스카이 차트 컴플리케이션은 상용시가 아닌, 별에 기초하는 항성시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항성시 캘린더와 별자리



지도 디스플레이는 숫자 판독으로 그 연결성을 추론하는 고전적인 달력과는 달리, 문자 그대로 그리고 매력적인 디자인의 다이얼을 통해 우주와 인류의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신비로운 달의 매력

비잔틴 해시계-달력(Byzantine Sundial-Calendar)으로 알려진 가장 초기의 문페이스 메커니즘은 기계식 시계보다 1,000 년 이상 앞서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달의 위상을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치메이커들은 달의 주기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고전적인 컴플리케이션의 구조는 2 세기 동안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의 정확성과 기계적 효율성을 개선하여 다른 컴플리케이션과 결합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달 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랑 메종은 삭망 주기(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29.53 일 동안 변화하는 달의 위상) 뿐만 아니라 근점 주기(달의 타원 궤도가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기준), 교점 주기(달의 궤도가 황도와 교차하는 시기)를 표시함으로써 이러한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2021 년, 예거 르쿨트르는 시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세 가지 달 디스플레이를 하나의 손목시계, 리베르소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185 에 통합했습니다. 이처럼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을 통해 일식과 월식, 슈퍼문과 같은 보기 드문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별의 매력

행성과 별의 움직임은 규칙적이고 측정 가능한 패턴을 따르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별똥별입니다. 유성이라고도 하는 별똥별은 사실 별이 아니라, 지구 대기에 들어오면서 밝게 타오르는 혜성 꼬리의 남은 파편 조각입니다. 일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은 워치메이킹을 지배하는 측정 가능한 규칙적인 리듬과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거 르쿨트르는 별똥별의 모습을 무작위로 재현하는 메커니즘 제작에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여성스러운 란데부 컬렉션을 위해 특별 제작된 신비롭고 낭만적인 컴플리케이션은 눈부신 클로 세팅 다이아몬드 베젤로 둘러싸여 별처럼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수작업으로 페인팅한 하늘 위에서 환상적인 자태를 드러냅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움직임

그랑 메종은 대기 온도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활용하여 스스로 작동하는 애트모스 클락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우주의 무한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90년 전에 발명된 이 모델은 여전히 매혹적인 오브제이며, 마법 같은 작동 방식만큼 메커니즘의 미학적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1990년대 말 문페이스 디스플레이를 갖춘 최초의 애트모스가 제작된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클락에 탑재할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을 계속 개발해왔으며, 올해는 지구와 달의 월별 주기 및 연간 주기를 동시에 재현하는 전례 없는 컴플리케이션을 도입했습니다.

기술과 전통, 예술의 결합

1833년이래로 예거 르쿨트르는 가장 단순한 칼리버에서 극도로 정교한 칼리버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에 걸맞는 430개 이상의 특허와 1,3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를 통해 독창성에 대한 탁월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2022년에는 이처럼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주와 그 다양한 주기를 통한 놀라운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자전은 그랑 메종의 유니버설 타임 칼리버인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됩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황홀한 별자리들은 뛰어난 성능의 칼리버 945가 선보이는 두 가지 새로운 예술적 재해석을 통해 손목 위에서 눈부신 빛을 발합니다. 폴라리스 컬렉션은 정교한 기술력의 매력과 일상적인 실용성을 갖춘 새로운 퍼페추얼 캘린더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매뉴팩처 워치메이커들은 밤하늘에 끊임없이 매료되며 여성스러운 랑데부 컬렉션을 위한 새로운 컴플리케이션에 보기 드문 별뿔별의 매혹적인 자태를 담아냈습니다. 더없이 획기적인 애트모스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590에서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와 달의 주기를 재현함으로써 애트모스 클락을 통해 우주의 무한함을 재해석했습니다.

2022년을 빛내줄 셀레스티얼 타임피스들은 밤하늘의 낭만과 탁월한 기술적 독창성이 조화를 이루며 기계 공학과 예술적 노하우를 갖춘 작은 걸작으로써 매뉴팩처의 독특한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STELLAR ODYSSEY 소개

2022 년 예거 르쿨트르는 인류의 시간 측정 방식의 근원에 있는 천문학적 현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뉴팩처 초기부터 천문학적 기능은 단순한 형태의 문페이스부터 매우 복잡한 퍼페추얼 캘린더, 군시차, 스카이 차트, 달의 교점 주기와 근점 주기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정교한 시계 컬렉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양, 달, 항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 측정법을 모두 마스터한 그랑 메종은 천체 현상을 나타내거나 예측까지 하는,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물입형 전시, 비주얼 아티스트 및 믹솔로지스트(mixologist)와의 콜라보레이션, 천체를 주제로 한 아틀리에 앙투안의 매혹적인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테마 이벤트 시리즈,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를 선보입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를 통해 손목 위의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된 우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